쓸쓸한 만해 열반 60주기

서울 망우리 시립묘지의 만해 스님 유택. 6월 29일이 스님의 열반 60주기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쓸쓸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달 29일 간소한 제사뿐…참배객 줄어 묘지엔 적막감만

불교계 기념행사 거의 없고 종단도 무관심

올해는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입적한 지 60주년. 뜻 깊은 해다. 열반 60주기(6월29일)를 일주일 남짓 앞둔 6월 18일. 만해 스님을 모신 서울 망우리 묘지는 너무나 쓸쓸했다.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참배를 올리던 예전에 비해, 찾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심지어 그곳에 스님의 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불자들도 많지 않다. 근대 한국 불교의 고승이자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시인이자 독립 운동가 만해 스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도 미미했나 놀랄 정도다.

만해 스님 열반재 준비로 이곳을 찾았던 대한불교청년회의 한 관계자는 "유택은 부지가 좁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한번에 열명 이상이 참배를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다"며 "평소 근대 한국 불교의 고승으로 존경해오던 만해 스님의 위상을 찾을 길이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이는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으로서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은 만해 스님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불교계의 무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6월 27일 대한불교청년회가 거행하는 만해 스님 입적 60주년 기념 열반재를 제외하고, 불교계에서 만해 스님을 기리는 이렇다 할 학술대회나 기념행사를 여는 곳은 없는 형편이다. 불교계 스스로가 한국 불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고승을 기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만해 스님 문하에서 공부를 한 설산 스님(염불만일회 회주)은 "만해 스님의 열반일이 잊혀진 데는 유가족들이 혈육의 정에 매달린 것도 한 몫을 했다"며 "입적 이후 스님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뜻있는 불자와 제자들이 나섰지만 유가족 측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것도 개인을 떠나 공인의 삶을 살다간 만해 스님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이유가 됐다.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외부와 연락을 피하고 있고, 열반일을 맞아 간소하게 제사를 받들고 유택 주변 정리를 하는 것 외에 별달리 스님을 기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다.

종단들 역시 만해 스님의 열반일을 무심하게 지나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불교 조계종의 후신인 조계종과 태고종은 이제까지 종단 차원에서 만해 스님의 열반일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거의 없다. 다만 한 때 만해 스님이 몸담았던 선학원과 고향인 홍성군만이 만해 스님의 열반을 기리는 제사를 간소하게 모시는 정도다.

서귀포시가 한국 전쟁 당시 2년 동안 머물며 창작활동을 했던 이중섭 화백을 기리기 위해 매년 성대한 축제를 열고 이중섭 거리를 제정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동국대 고재석 국어교육과 교수는 "만해 스님에 대한 불교계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의 승려 취처(僧侶 娶妻) 주장에서 근거한다"며 "많은 스님들은 그 때문에 만해 스님이 계율을 경솔하게 어기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만해 스님의 주장은 단재 신채호 등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자는 당시 지식인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것으로, 왜 스님이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 불교계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일어서라 불교청년들이여!

대불청 · 진각종 청년회, 7월 1~4일 수련회

"돌아가자 초발심으로, 일어서라 불청인들이여~!"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 이하 대불청)가 '제23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7월 3일부터 4일까지 진주 경남도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남강 야외공연장에서 연다.

'불청 제2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지구 8백여 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별 장기자랑 및 자유발언대, 퀴즈 골든벨 '불청 범종을 울려라' 등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서원을 담은 유등을 진주 남강에 띄우게 된다.

대불청 정상옥 회장은 "불청대회를 통해 대불청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조직체계 및 운영의 합리성을 강구해 불청 위상 정립과 포교의 대중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8-1920

한편 진각종 전국청년회(회장 김윤현)도 7월 1~4일 충북 괴산 '숲 속 작은학교 솔휘네'에서 '제31회 하기수련회'를 실시한다. '실천함이 정도니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에는 각 지역 청년회원을 비롯해 위덕대 불교학생회와 진각종 자성학교 전담교사, 교화직 종무원 등이 참석해 수행 · 생활 · 참여 · 화합 · 회향 등 5가지 부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종교비교체험은 심인당에 익숙한 진각종도들에게 타종단 사찰체험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다. (02)911-4509

박봉영 · 김은경 기자

한국종교연합 사단법인화 시동

발기인대회 총회 개최

한국종교연합이 사단법인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국종교연합(United Religions Initiative Korea, 대표 진월)은 6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연합 총회 준비에 들어갔다.

세계종교연합은 종교인들의 UN을 목표로 만들어진 세계 기구로, 한국종교연합은 1999년 5월에 창립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진월 스님과 세계종교연합본부 총화담당관 샐리 마헤 씨가 강연을 했다. 강유신 기자

국군 의장대, 취타대 등이 6월13일 호국및 순국선열 영가를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원광사로 이운하고 있다.

"호국영령의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군불총 천도대법회 열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대법회가 6월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열렸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권영기 · 국방대 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전쟁기념관에서 영가를 청혼해 원광사로 이운한 후 타종, 천도의식, 추모사, 영가봉송 등으로 진행됐다.

권영기 군불총 회장은 봉행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몰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하고 국가의 무운장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재단이사회 또 무산

파행 장기화 우려

6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동국대 제200회 재단이사회가 또다시 유회됐다. 지난 6월8일에 이어 두 번째.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신규이사 선임과 2003년학년도 결산 승인건 등이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현해 스님과 영담, 영배, 현성 스님, 홍기삼 총장, 황창규이사 등 6명만 참석했다. 지난 199 차 이사회에서 갈등을 빚었던 필동 중앙대 부속병원 매입문제와 2003학년도 결산 승인 거부로 야기된 이사회 파행이 앞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6월 16일 동국대 법인으로 전용된 교비 419억원을 환수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국대는 2개월 내에 전용 교비 전액을 학교 회계로 환수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조용수기자

"소규모 미신고시설 장점 살려

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그룹홈과 유사한 소규모 미신고 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조건부 신고시설 전환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7월까지 미신고시설을 조건부로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발표 이후, 미신고시설장 및 관계자 4백여 명이 6월 16일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효율적인 향후 지원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김광수 회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지난 02년 발표된 정부의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은 지원 또는 활성화정책이 아닌 관리대책일 뿐이었다"며 "대규모 시설이 할 수 없는 미신고 시설의 가정적 · 인간적인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도 "대다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은 열악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사각지대를 그동안 충실히 메워 왔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해당 지역사회에 맞는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역중심의 자원조달과 연계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재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조건부신고제는 그 과정에서 엄격한 실사와 평가를 거치지 않아 대규모의 조건부시설이 등장돼 민간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건익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조건부 신고시설의 원활한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로또 기금과 민간재원 등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된 방법에 의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목탁소리

대형불사 신중하게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해인사 수행문화도량 건립과 장경각 담장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옛 삼선암을 복원하는 내원암 불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02년 수행문화도량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는 해인사는 2003년 6월에 환경을 감안한 설계 공모까지 열어 설계도면을 선정한 상태였고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수행문화도량 건립에 재정과 시간 등 힘을 기울여 온 해인사로서는 이번 지적이 비생산적인 비판이라는 생각도 가질 만하다.

그러나 환경훼손을 걱정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언론과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않다.

더욱이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대형 불사는 공론 수렴 과정이 불가피하게 돼가고 있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공론 수렴은 중요한 단계이다. 그 과정에서 비판이 이루어져야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찰은 대형불사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배지선 기자